

# 강진,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채용 안전 교육

강진군이 지난 1일과 2일 강진 군웰니스푸소센터 다목적실에서 2026년 하반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근로자와 사업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채용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남도 안전학당 천만일 강사를 초빙해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과 현장 안전사고 예방 수칙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등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전남교통연수원 박선영 강사를 초빙, 사업장 이동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및 참여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령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무더위에 대비해 적절한 휴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상 증세 발생 시 즉시 관리자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대응 방법을 전달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직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근무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기를 바

란다”라며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군 차원에서 사업 참여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계지원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으로 강진읍시장 환경정화 및 관리 등 39개 세부사업에 근무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근로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업장별 안전관리와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참여자들이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폭염 등 계절별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전운재 기자



강진군이 하반기 공공근로 일자리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채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무안군, ‘2026년 분재 전문가 양성 교육’ 마무리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무안군은 지난 4일 ‘2026년 분재 전문가 양성 교육’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은 이번 교육은 생활원예에 대한 관심 증가에 발맞춰 군민의 분재 전문기술을 향상하고, 분재를 활용한 새로운 농업 소득 창출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일로읍농업인상당소에서 관내 농업인 등 군민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분재의 개념과 역사 ▲분재 도구와 장비 사용법 ▲분갈이 및 가지치기 ▲철사걸이와 수형 만들기 ▲물주기·시비·병해충 관리 등 분재 관리에 필요한 기초·실무기술을 단계적으로 익혔다.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의 분재 관리 역량을 높이고 실생활과 농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기술을 익히는 기회가 됐다.

/서용운 기자

## 목포시, 반부패·청렴시책 이행점검회의의 2차 개최



목포시가 청렴시책 이행점검회의를 열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목포 시청 제공

목포시(시장 강성휘)는 지난 7일 ‘2026년도 청렴시책추진단 반부패·청렴시책 이행점검회의의 2차’를 개최하고 청렴시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2026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비해 추진 중인 「반부패·청렴시책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서별 추진 현황과 미흡·미완료 과제의 이행상황,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이행 실적 등 주요 평가 지표를 점검했다. 시는 미흡한 과제를 신속히 보완하고 관련 실적을 빠짐없이 관리해 줄 것을 각 부서에 당부했다.

특히 청렴체감도 향상을 위해 ▲갑질 근절 종합대책 추진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 등 3대 핵심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시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성태 기자

## 함평군 해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6년 3분기 정기회의 개최

전남광주통합특례시 함평군 해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26년 3분기 정기회의를 열고 상반기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복지 현안을 논의했다.

함평군은 8일 “2026년 3분기 해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가 이날 오전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상반기 사업 추

진 실적을 공유하고 3분기에 이어질 복지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정영심 해보면장과 유순옥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했다.

해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설 명절 나눔활동 ▲꾸러미 지원 사업 ▲어르신 수납정리 지원 사업 ▲아동 지원 사업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 사업 등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 복지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회의를 통해 올해 추진 예정인 ‘해보야, 달콤한 크리스마스 나눔’ 사업 추진계획안을 심의했다. 협의체는 앞으로도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살피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나눔과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문수 기자

## 영암의 맛 통했다, 광주 직거래장터서 업체당 매출 15.7%↑

영암 농특산물들이 광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를 채우며 참여업체 한 곳당 평균 553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암군은 지난 9월 4~5일 광주 무등산자이언어울림아파트에서 열린 ‘2026 도농 상생한마당 직거래장터’에서 지역 11개 업체가 총 6,08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장터에는 지역 농·축산물 생산·

가공업체가 참여해 축산물과 김치, 멜론, 무화과, 고구마, 쌀, 샤인머스캣, 민물장어, 전통간식 등 영암의 농특산물을 판매했다.

올해 전체 매출은 지난해 8,120만원보다 줄었지만 참여업체 한 곳당 평균 매출은 478만원에서 553만원으로 15.7%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7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올해는 영

암무화과축제와 일정이 겹치면서 참여업체가 11개로 줄었다.

영암군은 현장 판매와 함께 군 공식 온라인 쇼핑몰 ‘영암몰’과 카카오톡 채널을 알리는 행사도 진행해 신규 고객 500명을 확보했다.

군은 장터 구매자의 재구매가 영암몰로 이어지도록 온라인 판로와 연계할 계획이다.

/김기철 기자

## 신안군, 염전 노동자 ‘힐링의 날’ 운영

신안군(군수 김태성)은 9월 8일 증도면 태평염전 내 교육장에서 관내 염전 노동자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염전 노동자 힐링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부터 추진해 온 ‘찾아가는 염전 관계자 맞춤형 인권·노무 컨설팅’의 일환으로, 염전 노동자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는 근로계약서, 휴게 시설 교육과 운동 처방, 심혈관계 질환(혈압·혈당) 검사를 실시했다. (재)신안군복지재단은 한방 진료, 건강 상담, 미용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자원봉사자 22명은 짜장면을 만들어 점심으로 대접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건강관리와 함께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해 현장 지원을 강화했다.

/박성태 기자

